

##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에 관한 연구

이현주<sup>†</sup>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0년 8월 3일 접수: 2020년 8월 12일 수정: 2020년 8월 14일 채택)

### A Study on the Ego-Integrity Phenomenon of the Elderly

Hyun-Ju Lee<sup>†</sup>

*Department of Nursing Hansei University*  
(Received August 3, 2020; Revised August 12, 2020; Accepted August 14, 2020)

**요 약 :** 본 연구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수집되었다.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방법 중 Colaizz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분석을 위하여 녹취하여 필사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309개의 중요한 진술이 추출되었고, 88개의 의미형성, 53개의 주제, 16개의 주제묶음,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와 주제묶음은 다음과 같다 : '지난 생애를 흐뭇하게 되돌아봄'(‘생애주기에 따른 보람’, ‘책임을 다함으로 이룩함’, ‘특별하고 감사하게 성취됨’), ‘쓰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신체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을 잘하지 못함’, ‘노후생활이 녹록치 않음’),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견뎌낸 만족감’(‘직장과 가정에서 수고한 것을 보상 받음’, ‘견디고 극복함으로 문제가 해결됨’, ‘지난날의 습관에서 벗어나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음’), ‘노년기 삶의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감’(‘지금껏 제일 뿌듯하고 좋을 때임’, ‘노년에 자기관리 함’, ‘늦었으나 열정적으로 살기’, ‘충만한 마음으로 생활전선에서 물러남’),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함’(‘노년에 대한 바람’, ‘임종을 맞이했을 때의 희망’, ‘죽음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과 감정’)이었다. 자아통합현상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어려움을 회상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통찰하게 되고, 이런 회상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위해 긍정적이며 초월적인 희망을 가지게 됨이 관찰되었다. 노인의 자아통합은 주관적이며 역동성이 있고, 연속적이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다. 나이와 경험의 형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것을 추천한다.

*주제어 :* 노인, 통합, 절망, 자아통합현상,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tt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nd describe the Ego-Integrity Phenomenon of the elderly of age 65 and olde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020 to July 2020 as an in-depth interview consisting of semi-structured question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laizzi's method, one of the phenomenology methods. All interviews were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julee64@naver.com](mailto:hyunjulee64@naver.com))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analysis. Through analysis, 309 significant statements were extracted, and 88 formulations of meaning, 53 themes, 16 theme clusters, and 5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ategories and the theme clusters are as such : 'reflecting on the past life with delight' ('fruitfulness over the lifetime', 'achieving through fulfilling responsibilities', 'achieved specially and gratefully'), 'Currently lonely and distressed due to the bitter old days' ('Physical health needs and psychosocial needs are not met', 'Wasn't able to make good choices for parents and children', 'Elderly life is not easy'), 'Satisfaction from enduring tough and difficult journeys in life' ('Compensated for hard work at workplace and home', 'Problem solved through endurance and overcoming', 'Living a healthy elderly life by escaping from the habits of the past'), 'Realizing the way of life as an elderly' ('Now is the best and most satisfying moment', 'Managing self in old age', 'Living passionately, though it may be late', 'Retiring from the forefront of life with an abundant heart'), 'Passing on beautifully' ('Desires toward the later years', 'Hope during the last moments', 'Appearance and emotions when death approaches'). It was observed that during the Ego-Integrity Phenomenon of the elderly, they have come to discern the meaning of life by reminiscing the regrets and difficulties of the past, and through this reminiscence, they have come to attain a positive and transcendental hop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 Ego-Integrity of the elderly appeared to be subjective, dynamic, and occurring simultaneously rather than continuously.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 variety of nursing intervention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 and the type of experience of the elderly.

*Keywords* : Elderly, Integrity, Despair, Ego-Integrity Phenomenon, Phenomenolog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가 확장되고 있으며, 수명연장으로 인해 수준 높은 노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이 되면 노화(Senescence)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 필요한데[1], 노년기의 부적응 문제를 잘 대처하고 성취할 수 있는 과업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자아통합(Ego-Integrity)'이다[2]. 이는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 자아가 갖는 확신으로서 인생주기를 유일무이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아를 존중했을 때 이루게 된다[1].

Erikson(1997)은 자아통합에 대해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3]. 이는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노인이 인생주기를 종합하여 노인으로서 자아를 확립하면서 갖게 된다. 노인이 현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이해함을 통해 자아통합(Ego-Integrity)과 절망(Despair)간의 긴장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4-6].

노년기는 자녀의 독립과 결혼, 은퇴, 신체적 기능감퇴, 건강상태 악화,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죽음에의 직면, 사회적 역할 상실, 친근한 사람들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다[1][7]. 이로 인하여, 주변과 스스로 단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등의 절망감을 경험한다. 절망을 느끼는 노인의 심리상태는 원망과 쓸쓸함, 현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8], 이는 부정적인 과거·현재 삶의 인식, 미래 계획의 부족, 실존적 고통을 초래하는 등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9-11].

노년기의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하여 절망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을 회상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며 자아에 대한 생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을 돌아보아 자기와의 내적 투쟁을 통하여 그 의미를 재평가함으로써 재조직·재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하나의 과정이며,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될 수 없는 정적인 개념이 아닌 역동적인

과정이다[12-13]. 노인의 자아통합은 신체적 상태, 지금까지 이룬 경제적 상태 및 달성한 사회적 지위보다는 노인이 생애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자기평가가 강조된 것으로, 과거를 수용하고 최선의 삶이어서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의견이 자아통합의 주요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2][14].

자아통합에 대하여 선행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은정(1992)은 자아통합현상에 대하여, 회상의 내용과 자아통합양상을 현상학적 연구의 Giorgi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성인 초기와 중년기의 위기수용 여부가 노년기 자아통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1]. 자아통합감 측정도구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한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초월적 영역', '대인 관계적 영역', '자기 신뢰적 영역'이었다[15].

전종호(2010)는 독거여성노인의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연구했는데, 중요지지세력인 자녀와 친밀감이 약하면 많은 부분에서 수용과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상요법이 적용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적 자아통합이 상당히 진행되어 긍정적이었다[13]. 양정훈(2015)은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자아통합의 유형을 '사회참여형', '변화형', '대인관계형'으로 분석하였다[15].

최한교, 염혜아(2019)는 노인 암 환자들의 자아통합감 회복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위기단계', '재구조화의 단계', '자아통합의 단계'로 전개된다고 하였다[17]. Y. Sinem Üzar-Özçetin, N. Ercan-Şahin(2020)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아통합에 대한 반응을 3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는데, '실제적 건강', '미래의 기대', '지난 삶에 대한 후회'였으며, 노년에 자아를 통합하는 데 있어 삶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었다[9].

본 연구는 노년기의 '자아통합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Colaizzi(1978) 방법을 적용·분석함으로써[18], 노년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노인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문제는 '노년기에 있는 간호대상자가 경험한 자아통합현상은 무엇인가?'로 정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을 탐색한 질적 연구로서, 그 본질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분석방법 중 Colaizzi(1978) 방법을 이용하였다[18].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9-20].

### 2.2. 연구진행과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SMMSE-DS (Short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점수가 18점(20점 만점) 이상이며[21],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도 표출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개인적 경험이 참여자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진실성(trustworthiness)있는 인터뷰자료를 충분히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총 6명으로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60대 1명, 70대 4명, 80대 1명이고, 남성은 4명, 여성은 2명이었다. 참여자 1명만이 사별하였고 5명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1명이고, 종교는 기독교 4명, 불교 2명이었다. 자녀는 2~3명이고, 가족수는 모두 2명이었다. 건강상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참여자1이 좋지 않았으며 참여자2는 중간수준이며, 나머지 3명은 건강상태가 좋았다. 경제상태는 모두 '중간' 정도라고 답하였다(Table 1).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그들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방문을 통한 일대일 심층면담 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질문내용은 "잠시 자신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생을 꼭 돌아보았을 때 어르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살아오셨던 경험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면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회 참여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6)

Participants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Religion	Marital Status	Children	Family members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1	M	83	retirement	christian	married	3	2	weak	average
#2	F	78	housewife	christian	married	3	2	moderate	average
#3	F	68	housewife	christian	married	2	2	good	average
#4	M	76	pastor	christian	bereavement	3	2	good	average
#5	M	70	retirement	buddhist	married	3	2	good	average
#6	M	75	retirement	buddhist	married	2	2	good	average

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였고, 면담 횟수는 1~2회, 1회 면담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자아통합에 대한 경험을 참여자가 스스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누락 방지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과 메모를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그대로 필사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연구에 앞서 보건복지부지정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P01-201910-21-011)을 받았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사적인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 보장과 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면담을 종료할 수 있음을 참여자에게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와 정보는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참여자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 1년 6개월간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잠금장치에 보관되며 모든 녹음내용은 필사 후 바로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영구삭제 및 자동분쇄처리 방법으로 폐기될 것임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 2.4.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연구자는 상호 전문영역에서 상담의 경험이 많아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있고, 박사과정에서 질

적 분석에 관한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박사과정 동안 동료 수강생들과 인터뷰 방법 및 기술의 훈련과 점검 및 질적 자료 분석을 훈련하였으며 질적 연구 워크숍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연구 과정 전반에 질적 연구자의 자문을 받았다. 또 연구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 전 과정에 연구자의 편견과 개인적 경험이 참여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성과정(reflexivity)을 유지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 2.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자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19-20]에 부합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아내고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경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도록 심층면담을 하였다. 또한, 면담 즉시 녹음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필사한 후 참여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본질적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신빙성(credibility)과 참여자의 삶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여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에게 필사된 내용이 자아통합에 대한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확인성(confirmability)을 거쳐, 적용을 위한 전이성(transfer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선정과 심층면담의 방법 및 과정, 자료수집과 분석의 전반적 연구 과정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의존성(depend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진실성, trustworthiness)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돌아가 확인 작업을 하였으며, 질적 연구전문가에게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 2.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7단계의 자료분석절차를 거쳤다[18]. 첫째,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깊이 느끼고자 면접 상황, 표정, 호소 등을 떠올리며 녹음된 면접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필사한 후, 노인의 '자아통합' 경험의 전반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자료를 주의 깊게 읽었다. 둘째, 원자료로 돌아가 '자아통합현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이나 구절들을 구별하여 여러 차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중요한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중요한 진술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의미형성(formulation of meaning)을 하였다. 넷째, 형성된 의미는 주제(themes)와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결과들을 통합하여 '자아통합현상'을 포괄적으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하였다. 여섯째, 철저한 기술을 통해 기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범주화의 과정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9개의 중요한 진술이 추출되었고, 88개의 의미형성이 되었으며, 53개의 주제와 16개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다.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에 대한 5개 범주는 '지난 생애를 흐뭇하게 되돌아봄', '쓸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견뎌낸 만족감', '노년기 삶의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감',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함' 이었다(Table 2).

### 3.2. 범주와 주제묶음

범주 1 : 지난 생애를 흐뭇하게 되돌아봄  
'생애주기에 따른 보람', '책임을 다함으로 이룩함', '특별하고 감사하게 성취됨'과 같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를 만나고, 귀인을 만나 정년 때까지 잘 살 수 있었던 행운을 놓치지 않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살았다. 태어난 자녀에

대한 반가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얻은 귀한 친구들과 내 인생을 바꿔준 친척의 만남이 있었다.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신임을 얻으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자녀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분가시켰다. 사업이 상승궤도를 타고 먹고 살 만한 넉넉함이 있었다. 일류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와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시절이었으며, 기대하지 않던 목표가 우연찮은 상황으로 성취되었다. 정성껏 준비한 결혼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

고마운 그 사람 때문에 무사히 정년까지 있었는데...(중략) 인생에서 고마운 분들을 만난 것은 내 복이라고 봐. 우연찮게, 아는 사람도 아니야. 사회에 나와서도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났어.(참여자1)

애들이 착하게 잘 커 주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그런대로 잘했고 상급학교 진학할 때 시험을 치면 척척되고...(중략)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니까 잘 키워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지.(참여자2)

결혼도 무난하게 남한테 빠지지 않도록 결혼식도 하고 또 분가도 시켜주었고...(중략) 저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참여자1)

(남편은) 자기 실력으로 진급도 빨리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살았던 거 같아. 그게 남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 같아.(참여자2)

방송 피디를 하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다가 방송 피디하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목사 안하고 있을 수는 없구나.. 중국동포들의 신앙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 안해' 그랬던 내가 목사가 된거야. 그것이 삶에서 제일 큰 변화지.(참여자6)

범주 2 : 쓸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

'신체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을 잘하지 못함', '노후생활이 녹록치 않음'과 같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80세가 가까워지면서 지병의 악화로 수술을 하게 되고 거동이 불편하며 심한 통증으로 버겁고 힘겹다. 동시에 지난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Table 2. Process of Categorizing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Reflecting on the Past Life with Delight	Fruitfulness Over the Life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t significant people in life</li> <li>• Children moved out after growing up well</li> <li>• Kept my family together for tolerable and comfortable life</li> </ul>
	Achieved Through Fulfilling Responsi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lt proud of being recognized for my abilities</li> <li>• Provided benefits to my child/children</li> <li>• Sufficient, content environment</li> </ul>
	Achieved Specially and Gratefu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ied happily due to smooth entrance to school</li> <li>• Achieved goals that I abandoned or was disappointed in</li> <li>• The marriage I prepared carefully came to fruition</li> </ul>
Currently Lonely and Depressed Due to the Bitter Old Days	Physical Health Needs and Social Needs Are Not M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eling heavy-hearted because of surgery due to disease, difficulties in mobility, and unbearable pain</li> <li>• Death of friends and the lack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eparation for the later years</li> <li>• Regret from not being able to enjoy social life due to various circumstances</li> </ul>
	Wasn't Able to Make Good Choices for Parents and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ldren not meeting expectations, Children's suffering and leaving</li> <li>• Heartbreaking and regretful events regarding parents</li> </ul>
	Elderly Life is Not Eas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ret from not managing assets well when business thrived</li> <li>• Cannot afford to do activities</li> <li>• Feeling sad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apart from others</li> </ul>
Satisfaction From Enduring Tough and Difficult Journeys in Life	Compensated for Hard Work at Workplace and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vided children with good things by taking heavy responsibilities</li> <li>• Managed good relationships (making friends) and abundant life through hard work</li> <li>• Was recognized and trusted by coping well with the difficult life with the in-laws</li> </ul>
	Problem Solved Through Endurance and Overc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reams came true and life became abundant from enduring poverty</li> <li>• Became healthy by overcoming disease</li> <li>• Self-fulfillment by regenerating self-esteem of being humble</li> </ul>
	Living a Healthy Elderly Life by Escaping From the Habits of the P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y to be healthy and exercise for being weakened, treated the elderly (like grandfather smell)</li> <li>• Made a resolution for my health: cutting off my drinking buddy, promising to quit drinking</li> <li>• Currently thankful for the absence of disease</li> </ul>

<p>Now is the Best and Most Satisfying Mo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lunteering: village chief, delivering Yakult</li> <li>• Living together: eating and enjoying together through fishing and gardening</li> <li>• Enjoying life now</li> <li>• Living at just good town in old age</li> </ul>
<p>Managing Self in 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creasing life expectancy through exercises</li> <li>• Cutting off drinking buddy</li> </ul>
<p>Realizing the Way of Life as an Elder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li> <li>• I don't consider myself retired</li> <li>• Living an intense and busy life</li> </ul>
<p>Retiring From the Forefront of Life With an Abundant He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eling good and liberated because I fulfilled my obligations towards my child/children (freed from heavy responsibility)</li> <li>• Comfortable and free from disease</li> <li>• Emptied my mind for mistakes during the period of my youth, despair</li> <li>• Living wisely (ability to empathize, avoiding worrying too much)</li> <li>• Feeling relieved and delighted</li> </ul>
<p>Desires Toward the Later Yea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nt to become innocent (not two-faced). Want to age beautifully (like a role model)</li> <li>• Want to be like someone who has good faith, and loves and treats others respectfully. Want to be like someone that takes care of, comforts, and forgives others.</li> <li>• Want to live a respectable life</li> <li>• Want to live humbly, sincerely, and reverently</li> </ul>
<p>Hope During the Last Mo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y greatest wish is for God to take me to Him (death) without me experiencing much hardship</li> <li>• Would like it if myself or my family do not suffer (Please)</li> <li>• Don't want to make children suffer (filled out advance directives)</li> </ul>
<p>Passing on Beautiful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t afraid of death</li> <li>• Have to go when God calls, at the age when He could call anytime, cannot reject death</li> <li>• Death is part of life</li> <li>• Death is difficult</li> <li>• Do not know how death will come</li> <li>• Want to finish my life well</li> <li>• Want to pass on beautifully</li> </ul>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므로 만나거나 연락할 친구들이 줄어들고 내가 이만큼 살 줄 몰랐다고 진술함에는 신체적 심리적인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느낀다. 자녀들을 놓아주지 못하여 느끼는 섭섭한 감정, 부모님이 겪으셨던 일들과 수발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과거에는 그래도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된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여도 쉽지 않다. 주변에 더불어 살지 못하는 고령의 독거노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날을 상상해보는 씁쓸함을 느낄 수 있다.

‘80 정도가 되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여태까지 80이 넘도록 몸이 아프게 이렇게 지나니까 괴롭고 힘들지 지금. 요즘같이 아프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없고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거울을 보고 있을 때는 완전 이제 내가 상노인이 됐구나, 특히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참여자1).

교수직과 교직원생활을 좀 밀고 나가서 그대로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내 평생에 그게 참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지.(참여자2)

내 노후 생각이 나고 해서 큰딸을 미국으로 보내는 생각을 했는데...(중략)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어...(중략) 딸한테도 책임이 많아. 억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딸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많이 했어... (내가)지금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그래.(참여자1)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건 어머니를 못 모신 거. 어머니는 나한테 있고 싶은데 내가 못 모신 거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참여자6)

소일거리도 하면서 약간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뭐라도 하면 좋은데 여건이.(참여자5)

범주 3 :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견뎌낸 만족감

‘직장과 가정에서 수고한 것을 보상받음’, ‘견디고 극복함으로 문제가 해결됨’, ‘지난날의 습관에서 벗어나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음’과 같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지난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다함으로 자녀에게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경제적 뒷받침, 남부럽지 않은 출가와 분가로 채워줄 수 있었다.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좋은 직장 친구를 얻어 은퇴 후까지 만났다. 어려운 시대 생활을 지혜롭게 하여 맘머느리로서 일가친척에게 신뢰받고 인정받

는다. 가난과 질병을 참고 견디어 현재는 넉넉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겸손하지 않음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자아성취 했다. 자녀·손들의 노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나 대접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질병이 없음이 감사하다.

남이 한 시간 일할 동안 나는 두세 시간 일하고 여행이나 놀러도 가지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나왔어요. 은퇴할 때까지.(참여자1)

자녀들이 한창 공부할 때 강남 8학년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다닌 것은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 비교적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졸업 다 했고. (참여자1)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직장 친구들 서울에 가깝게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즐겁고 또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나고.(참여자1)

내가 몸이, 결핵에 걸리게 되어서. 한주먹씩 약을 먹으면서 정말로 뼈만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콜록거리면 내 기침소리에 잠을 못 자는거야. 내가 약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얘기를 낳는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는데 얘기 낳고 이렇게 건강해지고.(참여자3)

친정에서 집안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시집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시누이가 심장이 아파서...(중략) 그 시중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중략)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무런 일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내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무슨 부작용이 나거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참여자2)

우리 손녀들이 오면 할아버지 뉘새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땀을 뺍니다. 그러면 뉘새도 덜나고...(중략) 자전거타고 샤워하고 싹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기 싫어도 억지로 땀 뺐려고.(참여자6)

범주 4 : 노년기 삶의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감

‘지금이 제일 뿌듯하고 좋을 때임’, ‘노년에 자기관리 힘’, ‘늦었어도 열정적으로 살기’, ‘충만한 마음으로 생활전선에서 물러남’와 같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은퇴한 후, 봉사하며 사람과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젊은 시절의 좋지 못한 습관과 단절하기로 결단하였다. 또 여러모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목적을 가지고 젊고 활기



차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 자유롭게 좋으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젊은 날의 실수와 절망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마음이 많이 후련하고 흐뭇하다.

내가 여기 와서 마을 이장도 맡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니까 참 내 자신도 즐겁고 재미나더라고. 할 일도 있고 하니까. 낚시하고, 많지는 않아도 반찬거리정도. 남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지...(중략) 첫째, 건강해야 되고, 건강 빼고 뭐가 있어. 건강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같이 어울리는 속에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건데.(참여자5)

85세 이상 독거할머니들 연고가 없고 혼자 촌에 사는 사람들 야쿠르트 배달을 지금 합니다. 내가 신청해 가지고 합니다. 왜! 혹시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도 없으면...(참여자6)

사실, 약주를 좋아하다보니까 아 안되겠다 몸상하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수양 겸 은폐해서 살자. 화이트하우스 조립식 지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술 안먹는다고 약속하고 그 대신 친구들하고 단절되었지(웃음)...(중략) 여기서 집사람하고 같이 새벽되면 걷고 트랙 돌면 서너 바퀴 돌면 30-40분. 수영하고...(참여자6)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차게 새벽 한 4시간은 빈틈없이 보내거든...(중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내에서 하는 사람이 나 하나예요. 일을 놓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동안 공부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매 맺은 건 지금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중략) 나는 그걸 60넘어서 깨달았어요...(중략) 만홍가완(晩紅佳完, 마지막에 붉게 타올라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자)이 내 표어야.(참여자4)

나는 지독한 가난도 겪어봤고 아프기도 했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어 봤고.. 모든 경험들이 도움이 되더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중략)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때까지 걱정한 대로 백 퍼센트 되지 않아. 백 퍼센트 되지 않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나는 생각보다 대답해요.(참여자3)

사업만 늘리다 보니까 부도도 조금씩 나고.. 마다 때려치우고 편하게 빨리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참여자5)

자기 인생 생활 인생관이라던가 젊었을 때의 일이라던가. 이런 걸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맘이 후련, 흐뭇하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맘이 조금 뒹. 생각이 남다르지.(참여자1)

다 독립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무거운 것에서 놓임을 받았고, 또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고 그런 거 같지만 지금이 잘 살고 있는 거 같아.(참여자2)

#### 범주 5 :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함

‘노년에 대한 바람’, ‘임종을 맞이했을 때의 희망’, ‘죽음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과 감정’ 과 같은 주제묵음으로 구성되었다. 노년에 대한 바람은 맑고 깔끔하게 이중적이지 않은 깨끗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늙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좋고 인격적이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을 돌볼 줄 알고 용서하고 다독거리는 사람을 본받고 싶은 바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다. 임종을 맞이했을 때, 본인이 힘들지 않았으면,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자녀들한테 고통 주고 싶지 않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4분이었다.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죽음도 인생이고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며 내 생애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아름답게 가고 싶다고 했다.

제발 참 가족들한테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순탄하게 힘들지 않게 가족들이나 본인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일 큰 바람이지.(참여자1)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끄럽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참여자2)

내일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너무 추하게 되지 않기를, 그저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기를. 내가 땅 위에서 너무 많이 누렸잖아요. 마지막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3)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아이들이 딸이 또 사위가 바쁘고 힘든데 나 때문에 수고할까봐 나 사전

의료.. 그것도 염두에 둔거고, 노쇠하고 쇠약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괴롭겠죠. 물론.(참여자3)

죽음이 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오. 젊을 때는 누구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제일 어려워. 내가 참 잘하고 가야 될텐데,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라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지마는 죽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거든.(참여자5)

그기 인생인데! 그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자연인데 자연으로 돌아가야죠.(참여자6)

#### 4. 논의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도출한 5개의 '자아통합현상'의 범주는 '지난 생애를 흐뭇하게 되돌아봄', '쓰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견뎌낸 만족감', '노년기 삶의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감',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함'이었다. Erikson이 주장한 자아통합은 죽음에 대한 수용과 삶의 만족이 지혜로 이어지며 삶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으로 특징지어지고 인생 전반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가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온전한 자아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22].

'절망(despair)'이라고 여겨지는 '쓰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면담과 타당성 확인을 할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아통합은 과거회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지난 삶의 어려움을 회상함으로써 그 추억들을 현재의 삶에서 수용하는 경험을 한다. 이는 노인들의 과거의 삶을 회상함을 통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통찰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1]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자아통합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참여자는 자녀를 통하여 삶의 가치를 찾고 자기정체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행연

구[1][13]와 같은 결과였다. 반면에, 근거이론을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통합경험의 핵심범주는 '거리두면서 관계유지하기'였다[16]. 또 노인 암환자가 자아통합감을 회복하는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므로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연속적이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아통합을 위한 반응을 '실제적 건강', '미래의 기대', '지난 삶에 대한 후회'의 3가지 주제로 분석하였으며[9]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과 생각'에 대하여,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한 고령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만 하는 것이며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23]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선행연구[15]에서 자아통합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초월적 영역', '대인 관계적 영역', '자기 신뢰적 영역'이었다. 이에 대한 하위 개념을 본 연구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과 대비하여 살펴보았을 때, 과거와 미래 간의 조화로운 생의 관점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습관에서 벗어나 노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음', 주변 여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보람', 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의 모습과 감정',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에 대해서는, '견디고 극복함으로 문제가 해결됨', 주변인과의 조화에 대해서는, '지금껏 제일 뿌듯하고 좋을 때임' 자신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늦었으나 열정적으로 살기' 경제적인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충만한 마음으로 생활전선에서 물러남'과 연결할 수 있었다.

자아통합감의 척도[24]는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생애에 대한 태도', '지나온 삶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수용'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성(spirituality)은 자아통합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실존적 영성과 자아통합감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6개의 요인이 모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종교적·실존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관찰한 결과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

져 있었다.

연령별 자아통합감에 대한 관련요인을 비교하는 연구에서[26], 노인 간호는 연령에 따라 고려해서 제공해야 하며, 60대 이상의 노인은 고용창출로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70대 이상의 노인은 지역사회건강센터에서 건강 돌봄 제공과 자존감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80대 이상의 노인을 위해서는 옹호, 지지 및 심리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자아통합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 자아통합현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될 수 없는 정적인 개념이 아닌 역동적인 과정이다[12]. 참여자가 절망감을 가지더라도 자아통합의 동시성과 역동성에 따른 재평가를 통해 결국은 온전한 자아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의 '자아통합현상'에 대하여 현상학적 분석법인 Colaizzi(1978) 방법을[18] 적용한 질적 연구이며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통합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노년기에 있는 간호대상자가 경험한 자아통합현상은 무엇인가?'로 정하였다.

연구진행 전,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IRB의 승인(P01-201910-21-011)을 받았다. 참여자로부터 IRB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SMMSE-DS (Short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점수가 18점(20점 만점) 이상이며[21],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의도 표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진실성 있는 인터뷰자료를 충분히 얻고자 하였고 참여자는 총 6명이었다.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9개의 중요한 진술이 추출되었고, 88개의 의미 형성이 되었으며, 53개의 주제와 16개의 주제목음이 도출되었다.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에 대한 5개 범주는 '지난 생애를 흐뭇하게 되돌아봄', '쓸쓸한 지난날로 인해 지금 외롭고 괴로움',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잘 견뎌낸 만족감', '노

년기 삶의 방법을 터득하여 살아감',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함' 이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통합현상은 면담을 통한 회상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통찰하게 되고, 이런 회상을 통해 남은 생애를 위해 긍정적이며 초월적인 희망을 가지게 됨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아통합은 가족관계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관계적 요인의 맥락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아통합을 위한 간호 중재로 가족프로그램 및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는 중재가 필요하다[16][27].

본 연구는 노인이 경험하는 자아통합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구였으며, 더 나아가 대상을 달리한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Butler(1974)에 의하면, 노인 혼자 회상할 때 회상의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청취자의 역할을 증시하므로[28]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생애 회고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 자아통합의 지속적인 변화를 평가하면서 자아통합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9], 자아통합경험의 형태와 나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E. J. Lee, *Reminiscence of older persons and their ego integ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2).
2. E. H. Erikson, J. M. Erikson, H. Q. Kivnick,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W. W. Norton & Company, (1986).
3. E.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 New York: Norton, (1997).
4. S. O. Chang, E. S. Kong, K. B. Kim, N. C. Kim, J. H. Kim, C. G. Kim, H. K. Kim, M. S. Song, S. Y. Ahn, K. J. Lee, Y. W. Lee, S. J. Chon, N. O. Cho, M. O. Cho, K. S. Choi, "The concept analysis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4, No.7, pp. 1172 -1183, (2004).

5. C. A. Miller,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Theory & practice, 3rd. ed.*, Lippincott, (1999).
6. J. H. Choi,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Bummunsa, (1994).
7. M. R. Lee, S. H. Kim, "The Interactive Effects of Age Groups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n Self-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1, No.4, pp.57-69, (2012).
8. S. A. Yoon, "The Developmental Task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rain Education*, Vol. Special, pp.120-148, (2011).
9. Y. Sinem Üzar-Özçetin, N. Ercan-Şahin,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on ego-integrity among older people in nursing home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020).
10. S. O. Park, *A pastoral study into ego integrity in terms of the image of g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2).
11. U. Wiesmann, H. J. Hannich, "A salutogenic analysis of developmental tasks and ego integrity vs. despai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73, No.4, pp.351-369, (2011).
12. R. N. Butler,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Vol.26, No.1, pp.65-76, (1963).
13. J. H. Jeon, *Research on Examples of Self-integration through Individual Reminiscence Therapy of an elderly female living alo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shin University, Seoul, (2010).
14. J. Yoon, *Psychology for the adult and the elderly*, Joongangjksung Publishing Co, (1994).
15. S. O. Chang, E. S. Kong, K. B. Kim, N. C. Kim, J. H. Kim, C. G. Kim, H. K. Kim, M. S. Song, S. Y. Ahn, K. J. Lee, Y. W. Lee, S. J. Chon, N. O. Cho, M. O. Cho, K. S. Choi,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Korean Ego-integrity i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3, pp.334-342, (2007).
16. J. H. Yang, "A Study on the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rough Grounded Theory: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5, No.2, pp.23-48, (2015).
17. H. G. Choi, H. A. Yeom, "Experiences of Ego Integrity Recovery in Elderly Cancer Patients: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9, No.3, pp.349-360, (2019).
18. P. F. Colaizzi,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In : R. S. Valle and M. King, editors,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71, (1978).
19. J. W. Park, J. H. Kim, H. S. Kim, J. H. Park, S. H. Bae, J. E. Song, S. E. Jung; D. F. Polit, C. T. Beck, *Nursing Research Generating and Assessing Evidence for Nursing Practice*, Soomoonsa, (2015).
20. M. S. Lee, M. H. Koh, H. M. Sohn, J. H. Kim, S. E. Oh, E. Y. Park, S. E. Oh, H. Y. Chang, *Qualitative research*, Soomoonsa, (2018).
21. J. W. Han, T. H. Kim, J. H. Jhoo, J. H. Park, J. L. Kim, S. H. Ryu, S. W. Moon, I. H. Choo, D. W. Lee, J. C. Yoon, Y. J. Do, S. B. Lee, M. D. Kim, K. W. Kim, "A Normative Study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and Its Short form(SMMSE-DS) in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1, pp.27-37, (2010).
22. K. J. Do, D. J. Kim, J. S. Kim, H. K. Kim, K. S. Oh, J. S. Lee, H. J. Lee; E. M. Varcarolis, *Essential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JMK, (2019).
23. H. K. Kim, S. C. Lee, J. S. O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ef of Loss and the Sense of Ego-Integrity of the

-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an Social Issues*, Vol.13, No.2, pp.17-32, (2007).
24. H. Y. Jeon,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Self-Integr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arginalized Elderly in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2010).
25. G. J. Choi, S. B. Je, “Spirituality Effect on Ego Integrity of Aged Peo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0, No,38, pp.109-125, (2007).
26. H. K. Kim, “A Comparative Study on Related Variables of Ego-Integrity in Elderly by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19, No.5, pp.12-26, (2007).
27. Y. H. Lee, *Health lifestyle of Korean eld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1993).
28. R. N. Butler, “Successful Aging and the Role of the Life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22, No.12, pp.529-535, (1974).